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도전 환영”

전북 상공인들, 금융그룹 투자에 기대감… KB·신한금융 전북 투자 방침에 “금융생태계 도약 전환점”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도전과 주요 금융지주의 전북 투자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를 비롯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생태계 기반을 점차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전북 투자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은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과 주요 금융지주의 투자 움직임이 전북혁신도시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금융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금융지주

그룹의 투자 추진은 상징성과 실질성을 동시에 갖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금융지주 및 금융계열사의 추가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공인들은 “전북 도민과 뜻을 함께 해 금융기관 이전과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금융·산업·인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금융기관, 지역사회 간

밀감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원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윤권 김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월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료시설 전기안전 강화 '맞손'

한국전기안전공사-국군의무사령부,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군 의료시설의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국군 의무사령부와 협력을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월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 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련 기술 자문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기술 자문을 제공해 정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공사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

남화영 사장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전기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문건설사업자 기성실적신고 1차 접수 시작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19일까지 실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성실적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전문건설업 2026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와 관련해 전문건설사업자의 기성실적신고 1차 접수를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문건설업을 등록·보유한 건설사업자 가운데 2026년도 정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희망하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기간 내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한 뒤, 2차 재무제표 신고까지 거쳐야 한다.

1차 신고 시에는 △제반 신고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매출증명서류 △기술자 증명서류(자격 및 재직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2차 신고에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직인 및 간인·천공)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가 포함돼야 한다. 특히 손익계산서에는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 항목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달러 예금 원화 환전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달러 예금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월 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달러예금 원화 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환율 상승 기대에 따라 외화 예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환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전북은행 외화보통예금(USD)을 보유한 개인 고객이다. 고객이 전북은행 모바일 앱 '쓱뱅크'를 통해 외화 계좌에 보유 중인 달러를 원화 계좌로 출금(환전)할 경우 최대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건당 미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 거래에 대해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쓱뱅크',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4기 교육생 모집

농협중앙회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예비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2일부터 '2026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4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18년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3기, 721명의 예비 청년농업인을 배출했으며, 수료 이후에도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을 통해 청년 준비와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딸기·토마토·엽채류 등 3개 작목 과정보로 각 30명씩, 총 9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으로, 농업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작목별로 운영되며 △입문(농업 기초·농협 이해) △중급(작목별 이론 및 선도농가 실습) △고급

(사업계획서 작성·창업 준비) 등 3개 모듈로 구성된다. 4개월 동안 총 440여 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에게는 △기술사 및 식사 제공 △정부 인정 귀농 교육시간 인정 △우수 교육생 장학금 지급 △출업생 영농 정착 지원 △브랜드 개발 및 판로 지원 △수료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딸기반 3월 13일까지, 토마토반 4월 3일까지, 엽채류반 5월 8일까지다. 농협청년농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농신보 남원권역보증센터, 올해 신규 보증 2260억원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가 올해 대규모 신규 보증 지원에 나선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진)는 농림수산업 활성화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약 2,26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남원센터는 지난 25년간 지역 농림수산업인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해 왔으며, 농어촌경제 기반 조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보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청년·장년 후계농업인 등 보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한 결과, 지난해 보증잔액은 5,400억

원에 달했다.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신용을 보증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농어촌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센터는 남원·순창·임실·장수 지역 내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총 78개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 실무 활용 역량 강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교육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섰다.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전산실에서 '2026년 상반기 생성형 AI 실무 활용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 개념 이해를 넘어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 AI·디지털 기초 개념 중심의 입문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기획과 업무 자동화 등 현장 적용 중심 교육으로 단계를 높였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도구인 ChatGPT를 활용한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직접 다뤘다. 참가자들은 △MS Office 자동화를 위한 ChatGPT 활용 △리서치 및 보고서 작성 자동화 △VBA 및 외부 생성형 AI 연동을 통한 업무 템플릿화 등 실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활용법을 익혔으며, 다양한 직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강의는 '똑똑'이라는 활동명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그라운드 이사가 맡아 실제 기업 현장 사례와 실습을 병행해 진행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